

2022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의 논술
채점자 매뉴얼

인문사회계열



[인문사회계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빗 독촉에 시달리던 남자 김 씨는 한강에서 자살하려다 우연히 살아남아 무인도인 밤섬에서 깨어난다. 밤섬에서 탈출하려던 남자는 버려진 오리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어느 날 쓰레기 속에서 짜장 라면 양념 가루를 발견한 남자 김 씨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져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한편 여자 김 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낸다.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방 안에서 사진 찍기인데, 우연히 밤섬 쪽을 찍다가 남자 김 씨를 발견한다. 오랜 관찰로 남자의 사정을 알게 된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짜장면을 배달시켜 보낸다.

s#83 방(오후)

여자의 망원 렌즈 시점. 짜장면을 들고 배달원 앞까지 걸어오는 남자. 배달원에게 '뭐라 뭐라'하는 남자. 그리고는 돌아서 가 버린다. 황당한 배달원.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도로 철가방에 담는다. 카메라에서 눈을 떼는 여자.

s#85 현관(오후)

딩동! ding동! ding동! 짜증 날 대로 난 배달원. 대답이 없자 현관 앞에 급기야 무작정 짜장면을 내려놓는다.

배달원 아, 몰라, 몰라, 몰라! 직접 전해주든지, 먹든지, 버리든지.....

여자 그 남자..... 다른 말 없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 같던데.....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배달원 전해 달래요.

여자 (동그랗게 떠지는 두 눈)

배달원 (갑자기 정색하며) 자기한테 짜장면은..... 희망이래요.

s#97 짜장면을 만들다(오후)

오리배 앞. 말린 옥수수의 알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남자. 여자가 보내온 와인병으로 힘차게 옥수수 알을 뺀 남자. 이제는 가루가 된 옥수수에 적당량의 물을 붓는다. 다시 한번 와인병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반죽한다. 반죽한 덩어리는 강통 뚜껑으로 얇게 잘라 낸다. 모닥불 위에 끓고 있는 물. 잘라 낸 면을 넣고 나뭇가지로 천천히 젓는 남자.

s#98 짜장면 완성(오후)

모래사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을 그릇에 담는 남자. 양념 가루를 들어 조심스럽게 짫다. 툭 툭 툭 양념 가루의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털어 낸다. 나무젓가락을 꺼내 쓱 쓱 면과 양념 가루를 비비는 남자. 마침내 어느 정도 비벼진 면을 잠시 바라보는 남자. 남자의 표정은 설명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하다. 드디어 완성된 남자만의 짜장면을 한 젓가락 들어 입으로 가져간다. 우걱우걱 씹는 남자의 감정이 어느 순간 북받친다. 감정을 누르고 다시 한 젓가락을 입 속에 넣는다. 우걱우걱 씹을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는 눈시울. 어느새 뚝뚝 떨어지는 굵은 눈물. 남자, 입가가 시커멓게 되도록 짜장면을 육여넣어 보지만, 북받치는 감정을 참을 길 없다. 애써 웃어 보려 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흐른다. 이제껏 흘려 본 적 없는 눈물. 말하자면 그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 같은 눈물이다.

s#99 방(오후)

여자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한다.

여자 (미소를 지으며) 콩그래츰레이션스.....

s#102 오리배 안(오후)

그동안 받은 와인병들이 줄지어 서 있는 오리배 안. 여자의 편지, 'CONGRATULATIONS'를 보고 있는 남자.

바라보는 남자의 평온한 시선. 비록 짧은 단어지만 많은 감정을 읽을 수 있다. 한동안 보던 남자, 무슨 생각에선지 오리배 안 구석,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곳에서 뭔가를 찾는다. 남자가 집어 드는 건 다름 아닌 휴대 전화.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는 남자. 폴더를 열고 잠시 후.

남자 헬로?..... 하우 아 유?..... 파인 생큐, 앤 유? 파인 생큐! 음..... 웨얼 아유 프롬?..... 코리안? 리얼리? 오 마이 갓! 미투! 미투! 아임 코리안! 프롬 도봉구..... 예..... 아..... 앤드, 아..... 할 얘기가 없다. 아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애초 하나뿐이었다.

남자 아이..... 아이..... 흠 투 씨 유..... 후 아 유?

(나) 로사, 피닌 그리고 코르데라 이렇게 셋은 늘 단짝이었다! 소몬테 목장은 구름 아래로 녹색 들판이 융단처럼 펼쳐진 삼각 지대였다. [중략] 사실 동료들보다 한결 고지식한데다 나이도 한참 위인 코르데라는 상대적으로 문명 세계와의 소통을 일체 마다한 채 멀찍이서 전봇대를 바라보았는데, 실제로 그녀는 몸을 비빌 수조차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죽어 버린 사물을 대하듯 했다. 그녀는 나이 지긋한 암소였다. 풀밭이라면 흰히 꿰고 있는 그녀는 몇 시간이고 자리에 앉아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았다. 풀을 뜯기보다는 명상을 즐겼고, 또 영혼을 살피우는 사람처럼(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다.) 자기 땅의 고즈넉한 회색빛 하늘 아래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했다.

그녀는 자기를 사육하는 일을 맡은 어린 목동들의 놀이에 할머니처럼 함께 어울렸다. 그럴 수만 있다면, 코르데라는 로사와 피닌이 목장에서 맡은 임무가 울타리를 벗어나 철길로 뛰어든거나 근처의 경작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녀를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머금었을 것이다. 무엇 하러 울타리를 뛰어 넘겠는가!

그녀는 이따금씩 풀을 뜯어 먹었는데, 많이 먹지도 않았고 갈수록 양도 줄었다. 하지만 어리석은 호기심 때문에 고개를 들어 한눈을 파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주저 없이 가장 좋은 풀을 골라 조심조심 몇 입 뜯어 먹고서 흐뭇하게 엉덩이를 깔고 앉아 살아온 날들을 되새김질하거나 고통 없는 기쁨을 만끽했다. [중략]

최후의 순간에 둘은 친구인 코르데라에게 몸을 던졌다.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안녕, 코르데라!”

눈물로 뒤범벅이 된 로사가 소리쳤다.

“잘 가, 사랑하는 코르데라!”

“안녕, 코르데라!”

감정이 복받쳐 피닌이 따라 외쳤다.

마지막으로 코르데라의 방울 소리가 자기 방식대로 응답했다. 체념한 코르데라의 슬픈 탄식은 마을에 내려앉은 칠월 밤의 다른 소리들에 섞여 사라져 갔다.....

이튿날 피닌과 로사는 평소처럼 아주 이른 시간에 소몬테 목장으로 갔다. 그 쓸쓸함이 그토록 슬프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날, 코르데라 없는 소몬테는 마치 사막과도 같았다.

갑자기 기적이 울리더니 증기가 피어올랐고, 이윽고 기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화물차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쌍둥이 남매는 높고 좁은 차창과 환기통에서 겁에 질린 채 채광창을 통해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암소들의 머리를 어렴풋이 보았다.

“안녕, 코르데라!”

로사는 친구인 할머니 소 코르데라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소리쳤다.

“안녕, 코르데라!”

피닌도 같은 생각으로 카스티야의 길을 질주하는 기차를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며 악을 썼다. 어리지만 세상의 야비함에 대해 여동생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피닌이 울면서 다시 소리쳤다.

“코르데라를 도살장으로 데려가는 거야..... 소고기가 되어 지체 높은 양반네들과 사제들..... 졸부들 입에 들어가는 거라고.”

로사와 피닌은 원망 어린 눈으로 그들에게서 친구를 앗아 간 적대적인 세계의 상징인 철길과 전봇대를 노려보았다. 돈 많은 대식가들을 위한 음식으로 만들어 그들의 식탐을 채우기 위해 오랜 세월 고독과 말 없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신들의 친구를 삼켜 버린.....

(다) 무술년은 내가 예순여섯 살이 되던 해이다. 갑자기 앞니 하나가 빠져 버렸다. 그러자 입술도 일그러지고, 말도 새고, 얼굴까지도 한쪽으로 뺄어진 것 같았다. 거울에 얼굴을 비춰 보니 놀랍게도 딴사람을 보는 것 같아 눈물이 내려 하였다.

사람이 체력을 유지하고 기르는 데는 음식만한 것이 없는데,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가 빠져 버리고 나니 빠진 이 사이로 물이 새고 밥은 딱딱하여 잘 씹히지 않으며, 간간이 고기라도 씹으려면 마치 독약을 마시는 사람처럼 얼굴이 절로 찌푸려진다.

나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입에 올리지 못한 책이 수도룩하다. 이제부터라도 아침저녁으로 시골 풍경을 바라보면서 책이나 흥얼거리는 것으로 말년을 보내려 했다. 그리하여 캄캄한 밤에 촛불로 길을 비추듯, 인간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가 빠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마치 깨진 종소리 같아서, 빠르고 느낌이 마디지지 못하고, 맑고 탁한 소리가 조화를 잃고, 칠음(음계를 이루는 일곱 가지 소리)의 높낮이도 분간할 수 없으며 팔풍(여덟 가지 악기의 소리)도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낭랑한 목소리를 내 보려고 안간힘을 써 보았으나 끝내 소리가 말려 들어가고 말았다. 나는 내 모양이 슬퍼서 책 읽는 일을 그만두어 버렸다. 그러고 나니 마음은 더욱 게을러져 갔다. 결국 인간의 근본을 찾으려 했던, 최초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이가 빠지고 난 뒤에 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다. [중략]

지금 얼굴이 일그러져 추한 모습으로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모두 놀라고 또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내가 아무리 늙었음을 잠깐만이라도 잊으려 한다 해도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는 노인으로서의 분수를 지켜야겠다.

옛날 선인들의 예법에, 사람이 예순 살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군대에 나가지 않으며, 또 학문을 하려고 덤비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일찍이 『예기』를 읽었으나 이와 같은 예법에는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곤 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크게 깨달았다. 앞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휴식을 찾아야 할까 보다. 결국 빠진 이가 나에게 경고해 준 바가 참으로 적지 않다 하겠다. 얼굴이 일그러졌으니 조용히 들어앉아 있어야 하고, 말소리가 새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고, 고기를 씹기 어려우니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고,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지 못하니 그냥 마음속으로나 읽어야 할 것 같다. 조용히 들어앉아 있으면 정신이 안정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며,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수복(오래 사는 복)을 온전히 누릴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글을 읽으면 조용한 가운데 인생의 도를 터득할 수 있을 터이니, 그 손익을 따져 본다면 그 이로움이 도리어 많지 않겠는가?

(라) 송도에 사는 황 진사의 딸 황진이는 시와 음악에 재능이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황진이는 서울의 윤 승지택과 혼약을 맺지만, 집안의 하인인 놈이가 황진이의 출생 배경을 누설하여 파혼을 당한다. 이 무렵 한 총각이 황진이를 연모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어서 그의 장례식이 열린다.

진이는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서로 부르고 찾는 소리, 자리를 다투는 걸직한 욕설들, 느닷없이 터져 오르는 너털웃음들..... 저 사람들은 지금 그의 고통을, 그의 슬픔을, 그의 창피를, 그의 굴욕을 구경하고 싶어 저리도 뒤설레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그렇다면 응당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지.)

진이는 자개함 통을 열고 그 안에 깊숙이 간수해 두었던 자기의 혼수를 꺼냈다.

사시쯤 되었을 때 상행이 뒤골 어구에 들어섰다. 상여는 앞으로 나갈 듯 뒤로 물러서고 물러설 듯 다시 앞으로 나가며 요령 소리와 상여 노래에 맞추어 그네처럼 한자리에서 흔들렸다.

진이는 담장 안쪽에서 문고리를 쥐고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진이는 문을 열었다. 구경꾼들은 깜짝 놀랐다. 상두군들이 상여를 내려놓았다. 진이는 죽은 총각의 관곽 앞에 마주 섰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나온 꽃무늬의 붉은 슬란치마를 활짝 펴서 관곽을 덮었다. 진이는 마치 눈에 보이는 그 누구와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류두날 밤 달빛 속에서 자기를 낫 잃고 쳐다보던 그 총각의 얼굴이 우렷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여보세요,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한번 얼핏 뵈은 일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죽음으로 보여 준 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압니다. 유명한 길이 달라 지금은 당신의 그 진실한 사랑에 보답할 길이 전혀 없군요. 혹시 이후 저승에서 다시 만나 뵈게 될는지..... 이승에서 보답할 수 없었던 사랑을 저승에서는 꼭 갚아 드리렵니다. 그 약속에 대한 표적으로 제가 마련해 가지고 있던 혼례 옷을 당신의 령전에 바치오니 알음이 있으면 받아 주세요. 인명이 하늘에 매였다고는 하나 인정에 어찌 애달지 않겠나요. 생사가 영 리별이라고 하지만 후생의 기약이 있으니 바라옵건대 어서 떠나세요.....”

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목소리가 갈려서 마지막 말을 채 맺지 못했다.

진이는 별당에 돌아와 방 안에 앉았다. 그는 방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은 혼백과 저승의 사랑을 약속했다. 진이는 사람들의 구구한 시비와 말밥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가지 자신에게 명백히 할 것은 이 행동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변덕이 아니라는 것이며 보다 중요하게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사랑의 감정을 송두리채 죽은 혼백한테 바쳐 버렸으니 이제부터 자기는 이승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랑이라는 감정은 전혀 있을 수 없는 목석과 같은 녀인이라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진이가 간절히 바라는 바요, 진심으로 원하는 바였다.

(마) 사춘기 반항의 푸른 물결을 반추하게 해 주는 소설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열에 아홉은 『호밀밭의 파수꾼』을 꼽지 않을까? 뉴욕 맨해튼에 사는 부유한 가정 출신의 16세 소년, 홀든 콜필드가 사립 학교에서 쫓겨나면서 이를 동안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담고 있는, 시간상 짧은 이야기이지만 그 응집력은 어지간한 장편 소설을 넘어선다. 홀든은 잘사는 부모도, 그 밑에서 죽은 듯이 암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도 싫다. 우리가 십 대 초반에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었던, 마치 '부정'이 역병처럼 돌던 시기를 관통했듯이 말이다. 그러던 와중에 세 번째 사립 학교에서 쫓겨난 홀든은 더는 어른들의 공허함 가득한 허위와 가식의 세계에 동참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학교라는 자신의 사회, 그 경계 밖으로 쫓겨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뛰쳐나온 홀든 앞에 펼쳐진 뉴욕의 거리 또한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중략] 마음과는 달리 떠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며 홀든은 담담히 꿈을 이야기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지.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바보 같은 얘기라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건 그거야.”

홀든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구절을 읽으며 나는 괜스레 눈물이 났다. 그가 얼마나 아이이고 싶은지, 또 동시에 얼마나 어른이고 싶은지를 느낄 수 있었다. 또 절벽에서 자신을 붙잡아 줄 어른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절벽 위에 서서 온갖 바람을 맞고 언젠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누군가 붙잡아 달라는 소리 없는 외침

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외침이 어른들의 세계에서 메아리도 없이 공허한 울림만으로 돌아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홀든은 공허함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므로 절실하게 내가 나를 이해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기애가 생긴다고 믿는다. 반항이나 방향이 필요한 까닭도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강이라고 인식하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반항과 방향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강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같은 것이다.

(바) '해시태그(hashtag)'는 해시(#, hash) 기호를 사용하여 게시물에 꼬리표를 단다는 뜻으로, 특정 단어나 문구 앞에 해시 기호를 써서 게시물이 그 단어나 문구와 관련된 것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이후 검색 기능이 더해져 해시태그를 누르면 똑같은 해시태그를 단 글들이 검색된다. 해시태그가 널리 알려진 계기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 기부 운동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기부 운동은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환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되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동영상을 누리 소통망에 올린 뒤 다음 도전자 세 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이어 간다. 찬 얼음물이 닿을 때처럼 근육이 수축되는 병의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느껴 보자는 취지이다. 2014년 여름부터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 인사는 물론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이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기부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사)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아)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한 것 일까요?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에 주목한 맹자와 달리 순자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에 주목했습니다. 이 욕구는 귀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눈이 좋은 빛깔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감각 기관의 이기적 욕구

와도 통합합니다. 순자는 이러한 생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이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대로 간다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착한 행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순자는 본성대로 가면 결과가 악이고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대로 가면 선이라고 합니다.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다고 해서 본성대로 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의지적 실천을 통해 본성이 가져올 악한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순자의 철학은 의지에 기초한 실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 양식이나 자아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은 범죄 통계에서 하층 노동 계급 청년들의 재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그들 개인이 아니라 사회 자체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미국 사회는 물질적 성공을 문화적 목표로 제시하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머튼에 따르면 실제로 성공을 위한 합법적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갖지 못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비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하려고 할 때, 일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이들에게 물질적 성공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손에 넣기 위해 불법적 방법이라도 시도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강도, 상점털이, 절도, 소매치기 등의 재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낙인 이론은 일탈을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이 아니라 일탈자와 비일탈자 간의 상호 작용 과정으로 해석한다. 누구나 때로는 일탈적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가볍고 일시적이며 쉽게 감추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일탈 행동이 일단 발견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그 개인은 일탈자로 낙인찍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일탈자로 대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그 낙인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일탈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한다. 결국, 일탈이 습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형을 마치고 전과자로 낙인찍혀 나온 사람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취업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기회 획득에서 차별을 받곤 한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와 이를 계기로 등장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문 (마)와 (바)의 차이를 서술하고, 제시문 (바)에서 언급된 '도전자'가 기부행위를 할 때 고려할 점을 제시문 (라)와 (사)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에서 언급된 순자의 철학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제시문 (자)의 논지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1.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이해준, 「김 씨 표류기」, 방민호 외 5인, 『문학』, 미래엔, 2018, 300-304쪽.
- 제시문 (나) 레오폴도 알라스, 「안녕, 코르데라!」, 서혁 외 6인, 『독서』, 좋은책 신사고, 2018, 172-179쪽.
- 제시문 (다) 김창흠, 「낙치설」, 김동환 외 6인, 『문학』, 천재교과서, 2018, 125-128쪽.
- 제시문 (라)
 - 홍석중, 「황진이」, 방민호 외 5인, 『문학』, 미래엔, 2018, 120쪽.
 - 홍석중, 「황진이」, 정호웅 외 5인, 『문학』, 천재교육, 2018, 297-304쪽.
- 제시문 (마) 왕상한, 「결정적인 책들」, 이삼형 외 7인, 『국어』, 지학사, 2019, 122-123쪽.
- 제시문 (바)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 기부 운동」, 최형용 외 8인, 『언어와 매체』, 창비, 2020, 217쪽.
- 제시문 (사)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신유식 외 9인, 『국어』, 미래엔, 2020, 15쪽.
- 제시문 (아) 김교반·이현구, 「순자의 성악설」, 박영목 외 4인, 『독서』, 천재교육, 2019, 108-109쪽.
- 제시문 (자)
 -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하는 하층 노동 계급의 재산 범죄」, 구정화 외 4인, 『사회·문화』, 천재교육, 2020, 83쪽.
 - 「낙인 이론이 설명하는 일탈에 이르는 길 - 일탈적 정체성과 2차적 일탈」, 구정화 외 4인, 『사회·문화』, 천재교육, 2020, 85쪽.
 -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김영순 외 4인, 『사회·문화』, 교학사, 2020, 69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18)에 실린 이해준의 「김 씨 표류기」이라는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다. 이 작품은 '문학의 가치' 단원 중 '문학과 삶의 다양성'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자아를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능력을 기르고, 타자를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제시문 (가)에서는 사회로부터 단절된 무인도인 밤섬에서 남자 김 씨는 스스로 짜장면을 만들어 먹으면서 원하는 것을 성취감을 느끼고 감격하여 삶의 희망을 발견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을 눈물의 이유임으로 파악해야 하고, 그런 이후 휴대 전화로 통화를 시도함으로써 타인과 소통하는 시도의 변화가 나타남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미래엔, 2018)에 실린 레오폴로 알라스의 「안녕, 코르데라!」에서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작품은 '독서의 분야' 단원 중 '지역을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에 실린 소설로,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에 반영되었음을 독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다. 「안녕, 코르데라!」는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빚으로 인해서 암소 코르데라가 쌍둥이 자매와 원치 않는 이별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인식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제시문 (나)의 쌍둥이 자매와 단짝이었던 코르데라와 원치 않게 헤어지게 됨으로 갖게되는 슬픔이 눈물의 원인이 됨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코르데라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기차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욕망과 약육강식의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인식하게 됨이 변화로 나타난다는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과서, 2018)에 실린 김창흠의 「낙치설」의 일부이다. 이 작품이 수록된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의 내용, 형식, 맥락 등을 바꾸어 작품을 재구성하고 문학 작품을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창작하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글쓰기가 자신의 신체 변화를 계기

로 인식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수필이다. 이가 빠지는 신체 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면서 글쓰이의 슬픔과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육, 2018; 미래엔, 2018)에 수록된 홍석중의 「황진이」의 일부이다. 이 작품이 수록된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하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조선 시대의 이름난 기생 황진이의 일생을 다룬 북한 장편 소설이다. 황진이를 사모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은 총각의 장례식에서 황진이가 눈물을 흘린 이유와 그를 계기로 황진이에게 나타난 변화를 중심으로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 (지학사, 2019) 교과서에 수록된 왕상한의 「결정적인 책들」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했다. 이 산문은 '3. 삶에서 책을 찾다' 단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주체적인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고, 타인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이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시문 (마)는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 필자가 인생의 과도기를 겪는 청소년들의 불안과 방향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서를 통해 등장인물의 상황에 감정 이입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깊은 공감과 주체적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창비, 2020)에 실린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 기부 운동」이다. 이 글은 'IV. 생활 속 언어와 매체' 단원의 '탐구하고 활용하는 학습 활동'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각종 매체에서 이뤄지는 언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매체 문화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 제시문은, '해시태그(Hashtag)' 기호의 검색 기능과 누리 소통망에서 갖는 확산성을 '아이스 버킷 챌린지'의 예시를 통해 보여준다. 특히,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고통을 함께 느끼자는 취지에서 시작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운동이다. 하지만, 이 운동은 순간적이면서도 유희적으로만 고통을 체험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공감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국어』 (미래엔, 2020) 교과서에 실린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의 전문이다. 이 시는 '1. 문학의 빛깔' 단원 중 '1. 서정 갈래의 이해'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현대시를 감상하며 문학적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문학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시는 시적 화자가 '너'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시에는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평등한 얼굴'로 다가감으로써, 진심으로 아픔에 공감해야 한다는 함축적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 시를 통해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깊이 공감하며, 더불어 평등하게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독서』 (천재교육, 2019) 교과서에 실린 「순자의 성악설」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했다. 이 글은 'Ⅲ. 독서의 분야 I' 중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에 수록되었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인문학적 세계관과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찰 등에 주목하여 글을 읽도록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제시문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말한 순자의 '성악설'을 논하고 있다. 순자의 철학에서는 '의지적 실천'이 중요하다. 순자는 본성이 가져올 악의 결과를 의지적 실천을 통해 억누르고 참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을 통해 '인간

의 본성'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관점을 도출해낼 수 있고, '성악설'을 사회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사회·문화』(천재교육, 2020) 교과서에 실린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하는 하층 노동 계급의 재산 범죄」와 「낙인 이론이 설명하는 일탈에 이르는 길 - 일탈적 정체성과 2차적 일탈」, 그리고 『사회·문화』(교학사, 2020) 교과서에 실린 「사회 집단의 의미와 유형」을 일부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부분적으로 편집했다. 이 글들은 자아 정체성이 소속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일탈 행동은 상황, 문화, 시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들을 통해 일탈 행동이 과거에는 개인의 특성 탓으로 규정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영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2.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와 이를 계기로 등장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가)-(라)에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가)의 남자 김 씨가 손수 짜장면을 만든 것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면서 삶의 희망을 발견하여 눈물을 흘렸고, 이를 계기로 세상과의 단절에서 벗어나고자 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게 된다. (나)의 남매는 늘 친구처럼 함께 지내던 암소와 예기치 않은 이별을 했기에 슬픔의 눈물을 흘렸고, 이로 인해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탐욕을 인식하고 야비한 세상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다)의 화자는 이가 빠지자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책읽기를 멈추어 자기수양에 나태해졌기에 슬퍼했지만, 이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이듦의 불편함이 오히려 이로울 수 있다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 (라)의 황진이는 죽음으로 보여준 총각의 진정한 사랑에 공감했기 때문에 애도의 눈물을 흘렸고 그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성취감, 이별의 아픔, 서글픔, 공감 등의 이유로 눈물을 흘리고, 이를 계기로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타인과의 소통, 현실 인식, 깨달음, 결단 등이다. (569자)

[문제 2]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문 (마)와 (바)의 차이를 서술하고, 제시문 (바)에서 언급된 '도전자'가 기부행위를 할 때 고려할 점을 제시문 (라)와 (사)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와 (바)를 공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마)에서는 독서라는 간접 경험을 통해 소설 속 인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공감이 나타나고, (바)에서는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체험을 통해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느껴보는 공감이 드러난다. 또한 (마)는 허구의 인물에 대한 공감이 불안과 반항을 겪는 청소년의 과도기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인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바)는 개인의 공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으로 이어져 기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바)의 도전자도 기부할 때 고려할 점을 (라)와 (사)에서 찾으면, 깊은 공감, 지속적 관심, 사회적 연대의식이다. (라)의 황진이는 자신을 사랑하다 죽은 자가 겪었을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있다. 도전자도 이처럼 환자의 처지에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기부활동의 전제임을 생각해야 한다. (사)의 시적 화자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삶을 비판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이를 고려할 때 도전자는 고통 받는 이웃과 평등한 위치에서 이들의 아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569자)

[문제 3] 제시문 (아)에 언급된 순자의 철학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제시문 (자)의 논지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아)에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비록 악하지만 개인의 의지를 통해 선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자)의 두 이론에 따르면, 순자의 철학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먼저 머튼에 의하면, 사람들은 본성에 관계없이 합법적 수단이 없을 경우 성공하기 위해 일탈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악한 행위를 의지적 실천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순자의 철학은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로 인해 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또한 낙인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일탈자로 사회

적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 일탈자임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악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순자의 철학은 전과자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다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다. (417자)

3.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눈물을 흘리는 이유와 이를 계기로 나타난 변화를 각각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 (32점 만점)

(가) **이유:** 남자 김 씨가 손수 짜장면을 만든 것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면서 삶의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임 (4점)

변화: 세상과의 단절에서 벗어나고자 타인과의 소통을 시도(4점)

(나) **이유:** 남매는 가족처럼 여기던 암소와 예기치 않은 이별을 했기에 슬픔 때문임(4점)

변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탐욕을 인식하고 야비한 세상에 반감을 가짐 (4점)

(다) **이유:** 이가 빠지자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책읽기를 멈추어 자기수양에 나태해졌기 때문임 (4점)

변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이듦의 불편함이 오히려 이로울 수 있다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됨 (4점)

(라) **이유:** 죽음으로 보여준 총각의 진정한 사랑에 공감했기 때문임 (4점)

변화: 총각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함 (4점)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 개의 제시문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와 이를 계기로 나타난 변화를 모두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부여- 세 개의 제시문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와 이를 계기로 나타난 변화를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부여- 두 개의 제시문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와 이를 계기로 나타난 변화를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부여- 한 개의 제시문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와 이를 계기로 나타난 변화를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부여 |
|---|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과 '눈물을 흘린 계기로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3점),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점).

- ①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한 핵심적 표현: 성취감, 이별, 서글픔, 공감
- ② 눈물을 흘린 후 나타난 변화에 대한 핵심적 표현: 타인과의 소통, 현실 인식, 깨달음, 결단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눈물을 흘린 이유와 이를 계기로 나타난 변화를 찾아 제시 (32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20점+20점)

1) '공감'의 측면에서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차이를 파악했는지 평가한다. (20점 만점): 3~20점 부여

- ① 공감의 유형: 제시문 (마)는 독서를 통해 등장인물에 감정 이입하는 공감을 강조하는 반면에, 제시문 (바)는 체험을 통해 고통을 느껴보는 공감을 보여줌. (10점)
- ② 공감의 결과: 제시문 (마)는 불안과 반항을 겪는 청소년들의 과도기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인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바)는 한 사람의 공감 행위가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으로 이어져 기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줌. (10점)

- 제시문 (마)와 (바)의 차이를 공감의 유형과 결과 측면에서 모두 정확히 서술했을 경우, 15~20점 부여
- 제시문 (마)와 (바)의 차이를 공감의 유형과 결과 측면에서 서술했으나 하나의 제시문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9~14점 부여
- 제시문 (마)와 (바)의 차이를 공감의 유형이나 결과 하나의 측면에서만 서술했을 경우, 3~8점 부여

2) 제시문 (바)의 도전자가 기부행위를 할 때 고려할 점을 제시문 (라)와 (사)를 활용하여 서술했는지 평가한다(20점 만점): 3~20점

- ① 제시문 (라)의 활용: 죽은 총각에 대한 온전한 공감을 보여주는 황진이 사례를 활용하여, 환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기부활동의 전제임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해야 함 (7점)
- ② 제시문 (사)의 활용: 타인에 무관심한 이기적 삶을 비판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대의식을 촉구하는 시의 주제를 활용하여, 고통을 받는 이웃과 평등한 위치에서 이들의 아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해야 함 (13점)

- 제시문 (라)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모두 활용하여 도전자가 고려해야 할 점을 정확하게 서술했을 경우, 15~20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활용하였으나 (사)의 주제가 충분히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9~14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각각 활용하지 않고 공통된 특징으로 공감만을 중심으로 서술했을 경우, 3~8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와 (바)의 차이를 공감의 유형과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했는지 평가 (20점): 3~20점 부여	(마)와 (바)의 차이를 한 가지 측면에서하거나 두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3~8점
		(마)와 (바)의 차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했으나 특정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9~14점
		(마)와 (바)의 차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서술했을 경우	15~20점
	② (라)와 (사)를 활용하여 (바)의 도전자가 기부행위에서 고려할 점을 제시했는지 평가 (20점): 3~20점 부여	(바)와 (사)의 논지의 공통된 측면만 고려하여 서술했을 경우	3~8점
		(바)와 (사)의 논지를 각각 활용하였으나 특정 제시문에 대한 활용이 부족할 경우	9~14점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활용하여 서술했을 경우	15~20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6점+14점)

1) 제시문 (아)의 순자 철학의 핵심 내용을 파악했는지 평가한다. (4점 만점): 1~4점 부여

① 제시문 (아)의 순자 철학의 핵심을 파악: 순자 철학을 본성과 의지적 실천 측면에서 파악하여 제시해야 함.

② 제시문 (아)의 순자 철학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시: 순자의 철학은 인간이 본성은 악하지만 개인의 의지적 실천을 통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적절하게 요약하여 서술해야 함.

- 제시문 (아)에서 순자의 철학을 단순하게 제시한 경우, 1~2점 부여

- 제시문 (아)에서 순자의 철학을 본성과 의지적 실천을 모두 제시한 경우, 3~4점 부여

2) 제시문 (아)의 순자의 철학이 갖는 한계를 제시문 (자)의 두 이론을 토대로 서술해야 한다(16점 만점): 5~16점

- ① 순자 철학의 한계를 머튼의 이론과 연계하여 서술: 제시문 (자)에서 머튼이 제시한 이론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제시문 (아)에 나오는 순자 철학이 사회적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일탈 행위를 간과함을 서술함.
- ② 낙인이론의 관점에서 순자 철학의 한계를 서술: 제시문 (자)에 낙인이론의 핵심 논지를 이해한 후 제시문 (아)의 순자 철학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일탈행위가 반복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서술함.

- 제시문 (아)의 한계를 제시문 (자)의 두 이론 모두를 토대로 서술한 경우, 12~16점 부여
 - 제시문 (아)의 한계를 제시문 (자)의 두 이론 중 하나만으로 서술한 경우, 5~11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제시문 (아)의 순자 철학을 본성과 의지적 실천을 측면에서 파악했는지 평가 (4점): 1~4점 부여	제시문 (아)의 순자 철학을 본성 또는 의지적 실천 측면에서 단순하게 요약하는 경우	1~2점
		제시문 (아)의 순자 철학을 본성과 의지적 실천을 모두 고려하여 파악하는 경우	3~4점
	② 제시문 (아)의 순자 철학의 한계를 제시문 (자)를 근거로 서술했는지 평가 (16점): 5~16점 부여	(아)의 순자 철학의 한계를 (자)의 두 이론 가운데 하나만으로 서술한 경우	5~11점
		(아)의 순자 철학의 한계를 (자)의 두 이론 모두를 토대로 서술한 경우	12~16점